

2023. Autumn. 435

어게인 경북

GYEONGSANGBUK-DO MAGAZINE



*Gyeongbuk Story Full of
Autumn Wind*



QR코드로 더 생생하게 즐기는 2023 어게인경북

영양 두들마을

경
북
탐
구,

멋

캠핑은 경북에서
즐기세요

시원한 가을밤,
탁 트인 자연 속에서 즐기는 캠핑은
일상에 보물 같은 휴식을 가져다 줍니다.



CONTENTS

목차

GYEONGSANGBUK-DO
MAGAZINE
2023 / AUTUMN

VOL.435

발행처 경상북도

발행인 이철우

편집인 임대성

발행일 2023년 9월

문의처 경상북도 대변인실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4285

홈페이지 www.gb.go.kr

어게인 경북은 E-Book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게인 경북에 실린 글과 사진은
경상북도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어게인 경북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햇살 가득 경북

-
- 02 경북탐구, 멋
“캠핑은 경북에서 즐기세요”
 - 06 다이내믹 경북
경상북도 K-드라마 촬영지 탐방
 - 10 마:식 경북
선비의 혼이 담긴 음식 이야기
: 수운잡방
 - 12 시너지 여행
경상북도 액티비티 명소를 소개합니다
 - 14 경북의 자연
정원 안의 천년(千年) 녹(綠)과 향(香)을 담다
: 경북천년숲정원
 - 16 경북탐구, 삶
의성 청년마을
: 로컬러닝랩 ‘나만의-성’
 - 18 오늘의 경북
경북의 빛나는 현재를 조명하다
: SNS 서포터즈 인터뷰



미소 가득 경북

- 22 **4차산업 리더 경북**
미래의 삶을 코딩하다
: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

- 24 **농업대전환 경북**
청년의 구슬땀으로 더해진 농촌의 활력
: 경상북도 스마트팜혁신밸리

- 26 **레인보우 경북**
경북에서 꿈을 키우다
: 외국인 유학생 인터뷰

- 28 **경북탐구, 흔**
한복의 대중화를 선도하다
: 한국한복진흥원

정성 가득 경북

- 30 **한눈에 보는 경북도정**
'경상북도 명장(名匠)의 전당'에 깃든
영광의 시간

- 32 **화공 굿모닝 특강**
새벽 공부의 힘,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 34 **경북 도정 뉴스**
도정 소식

- 38 **경북 의정 뉴스**
의정 소식

- 42 **경북 소식 알림마당**
백년가계·백년소공인 육성사업



음성변환바코드
어게인 경북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K-드라마 촬영지 탐방



다이나믹 경북,
K-드라마의 배경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여름의 열기를 식히고 겨울의 냉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가을. 잠시 쉬는 가운데 소소한 재미도 즐겨보자. 단지 자연을 감상할 뿐만 아니라, 즐겨보는 드라마의 촬영지를 탐방하며 마치 드라마 속 등장인물이 된 것처럼 풍경을 눈에 담는 건 어떨까? 국내외 할 것 없이 열렬한 인기를 자랑하는 'K-드라마'의 촬영지에는 **우아한 경상북도의 명소가 많다.** 그중 가을과 낭만 있게 어우러지는 3곳을 소개한다.



예천 초간정 <미스터선샤인>

초간정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정자로, 자연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명소다. 거대한 암반 위에 세워진 정자는 푸르른 소나무에 둘러싸여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에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고개를 들면 높고 청량한 하늘을, 고개를 숙이면 졸졸 흘러가는 계곡을 담을 수 있어 **기분 좋은 가을바람을 맞기에 제격이다**. 조심스레 대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을 벗고 초간정에 발을 내디디면 <미스터선샤인>의 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바로 드라마 속 고애신(김태리 역)의 집으로 바람개비를 불며 유모와 편안히 쉬어가는 장면이다. ‘편안히’ 쉬어가는 장면답게, 더위에 불쾌해하지도, 추위에 팔을 감싸지도 않는 드라마의 연출은 가을이라는 계절을 체감하게 한다. 정자에 가만히 앉아서 곧게 세워진 소나무를 응시해보자. 드리운 그늘에 찌푸리지 않아도 되는 날씨, 시내 소리, 녹음의 조화는 안정감을 함께 선사한다.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874



안동 부용대 <킹덤>



“가을과 낭만 있게 어우러지는 곳”

태백산맥의 끝자락에 있는 부용대는 해발 64m의 높이를 자랑한다. 웅장한 수직 절벽과 잔잔한 냇가의 서로 다른 매력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며 찬찬히 둘러보는 경관은 시선을 뺏고 부용대에 온전히 집중하게 만든다. **절벽 사이 바위틈에서 가을의 색을 머금은 나무를 살펴보자**. 이 풍경은 드라마 <킹덤>에서 안현대감(허준호 역)이 정체불명의 배가 표류했다는 소식을 듣고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덩그러니 놓인 배는 끝없이 펼쳐진 부용대의 신비로운 풍경과 어울린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감상하는 방법에 더불어 부용대를 더욱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부용대 정상에 올라가 낙동강 즐기와 인근의 하회마을을 한눈에 담는 것이다**. 올라가는 길의 소나무 숲을 즐기며 도달한 정상에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특색있는 전망이 펼쳐진다. 여기서 부용대라는 이름의 유래도 알 수 있다. 내려다보는 하회마을의 모습이 연꽃, ‘부용’과 같다는 의미로 지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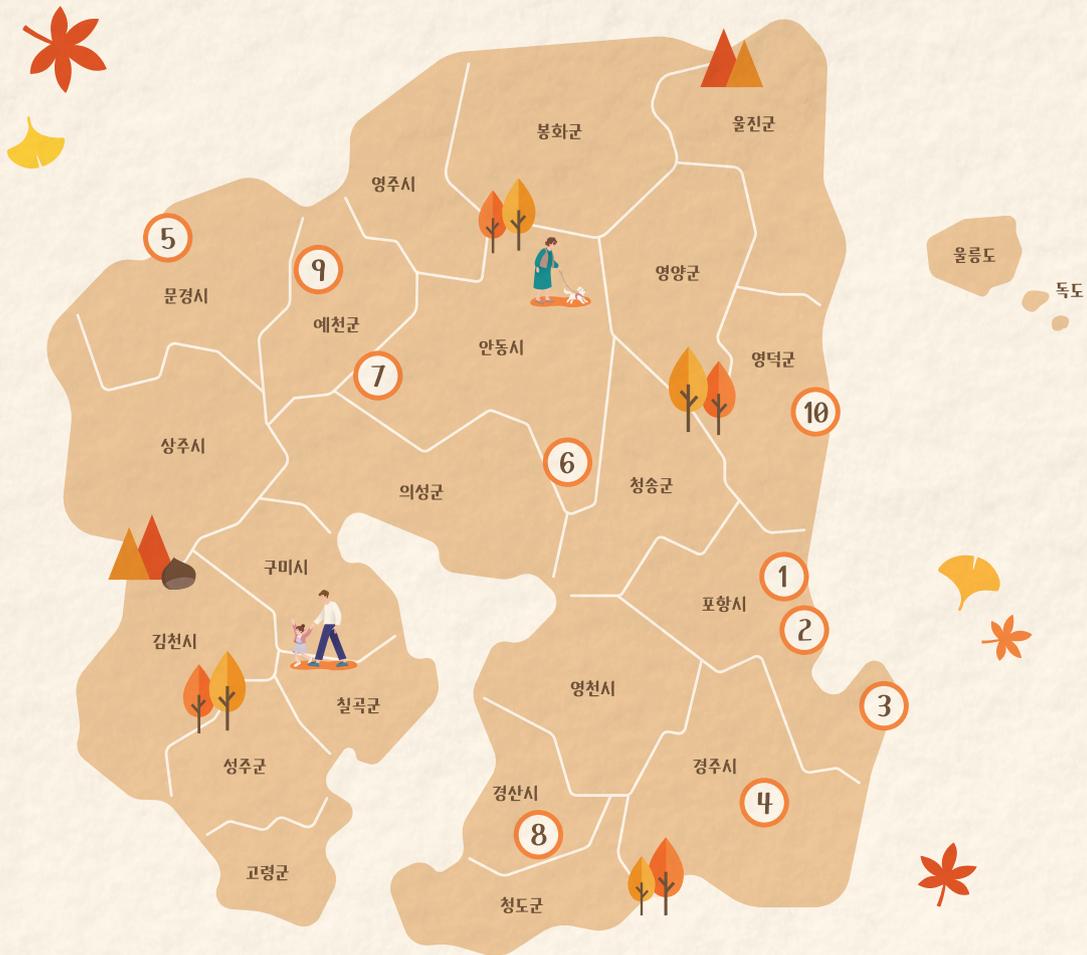
🏠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산23-3

포항 곤륜산활공장 <갯마을차차차>

암벽, 울창한 숲이 어우러지는 보통의 산 정상과 달리 곤륜산활공장은 넓은 평지에 인조 잔디가 깔려 있다. 더위가 가신 시원한 가을 날씨는 가파른 경사의 길을 오르며 송글송글 맺힌 땀을 말려준다. 정상에 올라간 순간 시야를 가득 채우는 풍경은 오르는 과정을 보상하듯 아름답게 탁 트여있다. 활공장이라는 용도에 걸맞게 대차게 부는 바람은 청량하다. 곤륜산활공장은 드라마 <갯마을차차차>의 촬영지로, 그 풍경을 감상하려는 사람으로 북적인다. 지평선이 무색할 만큼,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맞닿은 하늘과 바다는 저마다의 푸른빛을 낸다. 빛을 안은 하늘과 빛을 비추는 윤슬을 안은 바다를 함께 볼 수 있다. **웅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의 지붕들은 <갯마을차차차>의 포근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드라마 속에서 '홍반장'이라고 불리는 홍두식(김선호 역)이 외부인이 방문할 때면 소개해주던 전망대로, 동화 같은 상상을 할 수 있다. **근사한 배경으로 가만히 서서 멋진 사진을 남겨보자.**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경상북도 K-드라마 촬영지 모음집

연번	촬영 장소	드라마 제목	지역
1	청하시장	갯마을차차차	포항
2	곤륜산활공장		
3	구룡포일본인가옥거리	동백꽃필무렵	
4	보문정	BTS 화양연화	경주
5	문경새재오픈세트장	킹덤	문경
6	만휴정	미스터션사인	안동
7	부용대	킹덤	
8	반곡지	달의연인	경산
9	초간정	미스터션사인	예천
10	경정항	BTS 화양연화	영덕

500년 전통의 음식조리서

수운잡방,

선비의 혼이 담긴 음식 이야기

'수운잡방'은 경북 안동의 유학자 김유와 그의 손자 김영이 대를 이어 기록한 조선 초기의 음식조리서이다. 역사적·학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8월에는 음식조리서 최초로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안동 군자마을 설월당종가의 혼을 지키고 있는 김도은 종부를 만나 수운잡방의 가치를 나누었다.

상상만으로 벅찬 전통 음식의 세계

수운잡방에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15세기의 진귀한 음식들과 무려 60가지가 넘는 전통주 제조비법이 담겨 있다. 음식과 술의 기록이 섬세하게 집필돼 있는데, 한자로 기록되었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이 덕분에 한자 한 글자마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해석이 가능하며 의미의 본질까지 잘 살리고 있다. 김도은 종부가 모든 요리를 직접 만들고 있는 '수운잡방체험관'은 유서 깊은 음식의 참맛을 느끼기 위한 이들로 연일 붐빈다. 재방문율이 90%에 이를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술과 음식의 끈끈한 조합을 통해 우리 조상들이 즐겼던 진짜 술 문화에 대해서도 설파하고 있다.





재방문율이 90%에 이를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술과 음식의 끈끈한 조합을 통해 우리 조상들이 즐겼던 진짜 술 문화에 대해서도 설파하고 있다

콘텐츠의 힘을 보여주다

수운잡방은 한 가문을 넘어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거듭나고 있다. '음식과 술은 양심과 진정성으로 빛어야 한다'는 김도은 종부의 말처럼 수운잡방에는 음식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진심까지 녹아있다. 또한 수운잡방체험관의 음식은 오직 경북농산물만을 고집한다.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 지역 상생에 기여하는 동시에, 음식의 신선도와 맛까지 최상으로 끌어 올린다.** 500여 년을 촘촘히 이어온 우리 고유의 맛은 앞으로도 김도은 종부의 아무진 손끝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한편 올해 12월에는 철저한 역사·요리 고증을 거친 영화로 재탄생해, 옛 선조들이 그린 미식의 세계를 아름답고 유쾌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세계 각국의 미식축제에서도 수운잡방의 스토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계로 뻗어갈 수운잡방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Beef stew

김도은 종부가 추천하는 가을 음식
'천마 소고기탕'



- 재료 및 분량** 쇠고기 400g, 마 200g, 계란 1개, 집간장 ½ ts, 참기름 ⅓ ts, 엿물(물 1½컵, 물엿 1½ ts), 천일염 2ts
- 요리법** 천마(산마)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소고기와 함께 참기름에 잘 볶는다. 물을 붓고 국간장(집간장)으로 취향에 맞게 간을 하면 감칠맛이 일품인 소고기탕이 완성된다.

Tip 천마의 미네랄 성분과 소고기의 아미노산이 더해져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수운잡방>에서는 '서여탕'이라고 소개된다.





경상북도 액티비티 명소를 소개합니다

선선한 날씨의 가을은 야외활동을 즐기기에 제격인 계절이다. 그중에서도 액티비티는 반복되는 일상에 짜릿한 활력을 더해준다. 경북에는 자연을 활용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다. 경북의 액티비티 명소에서 다가오는 가을의 정취를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느껴보자.

Gyeongsangbuk-do *activity spot*

짜릿한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청도 군파크 루지

01

루지는 간단한 조작으로 짜릿한 속도감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은 레포츠다. 청도 군파크 루지는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1.88km의 트랙 길이를 자랑한다. 또한 **숲길을 따라 트랙을 조성해 숲의 경관을 만끽하도록 했다.** 다채로운 곡선 주रो와 적당한 경사가 있는 트랙을 활강하며 자연의 상쾌함과 루지의 짜릿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루지 출발 지점인 용각산 자락의 정상에서 바라보는 청도의 가을 풍경도 놓칠 수 없는 묘미다.



① 경북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로 350-30
② #숲속짜릿함 #남녀노소누구나



① 경북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산50-2
② #하늘여행 #선물같은경험

02

다이내믹비행, 상주 활공랜드

낙동강 주변에 위치한 상주 활공랜드에 가면 **패러글라이딩이 파란 하늘을 자유롭게 비행하는 장관을 볼 수 있다.** 가을바람이 이끄는 대로 하늘을 유유히 가로지르다 보면 세상 근심이 모두 없어지는 듯하다. 이곳에서는 하늘길을 드라이브하듯이 날 수 있는 기본비행부터 놀이기구와 같은 짜릿함을 맛볼 수 있는 다이내믹비행, 두 가지 모두를 체험하고 직접 글라이더를 조종할 수 있는 VIP비행 중 하나를 선택해 비행할 수 있다.

낙동강을 달빛으로 수놓는, 안동 월영교 문보트

03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책교인 월영교는 경북에서 손꼽히는 야경명소다. 월영교의 야경이 특별한 이유는 낙동강을 달빛으로 수놓는 문보트 때문이다. 문보트는 초승달 모양의 보트로 선체에 LED를 적용해 빛나는 달을 연출한다. **탑승자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트에 부착된 스피커를 통해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다.** 또한 조이스틱으로 간편한 조종이 가능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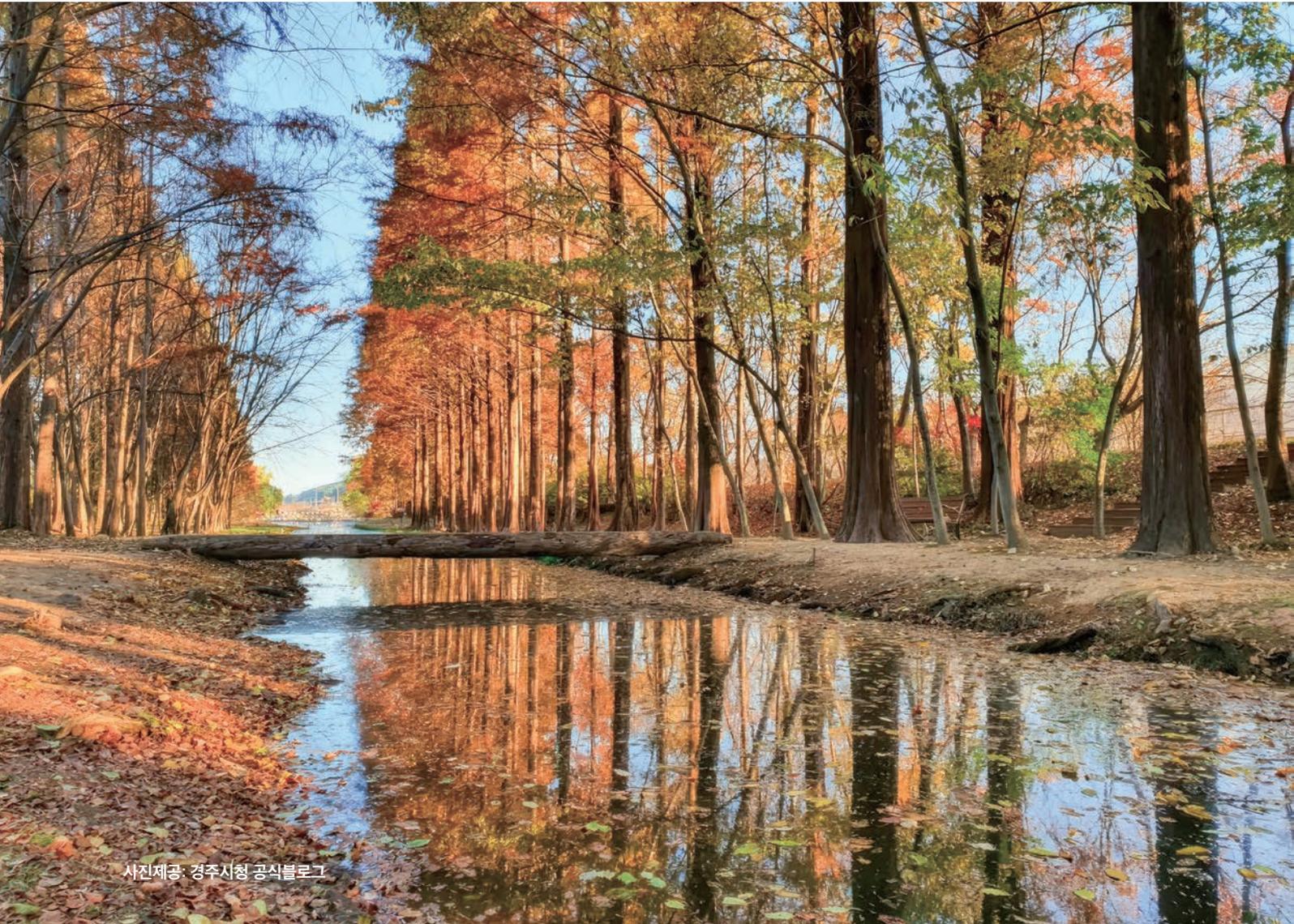


① 경북 안동시 상아동 569
② #달빛야경 #유유자적남만

정원 안의 천년(千年) 녹(綠)과 향(香)을 담다

- 경상북도 지방정원 1호 <경북천년숲정원>

경주 천년숲 정원이 경상북도 지방정원 1호로 지정되었다. 전국에서는 5번째로, 기념비적인 성과이다. 천년숲 정원은 기존의 경주 남산 자락에 위치한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내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조성하였다. 주요 역사지구와 가까워 위치가 좋고, 사진이 잘 나오는 것으로 유명해 입소문을 타고 있다.



사진제공: 경주시청 공식블로그

지방정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을 의미한다. 연이은 도심지 개발로 인해 정원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자 이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원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렇게 기획된 지방정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정원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정원마다 지역이 가진 특색을 살려 고유한 멋을 느낄 수 있고, 각기 다른 유형의 정원들을 조성하여 휴양 기능뿐만 아니라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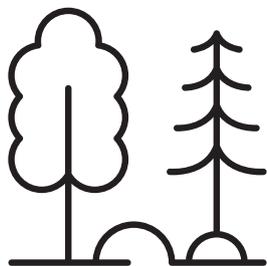


정원을 조성하기에 앞서 경주가 가진 지리적 가치를 높게 보았다. 풍부한 문화유산과 전통적인 분위기 그리고 천년의 역사를 정원으로 형상화하였다. 겹겹이 쌓인 역사와 멋이 가득한 공간의 천년 고도를 녹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관람객들이 숲을 거닐면 공간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즐거운 사색을 가능케 한다. 깊은 향과 계절의 변화가 오감을 깨우는 건 숲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처럼 천년 숲은 도심에서 보기 힘든 숲 체험을 제공하고 힐링 공간으로 기능하며 도민에게 양질의 삶을 보장한다. 지역경제 발전에까지 기여할 수 있다.

사진 명소를 찾는다면 외나무다리를 빼고 논할 수 없다. '거울숲'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메타세쿼이아가 줄지어 서 있고 그 사이로 실개천이 흐른다. 실개천 위로 놓인 외나무다리가 포토스팟으로 유명하다. 그들이 지면 강물에 사물이 더욱 잘 비쳐 이름이 붙었다. 길을 따라 산책하기에 좋고, 걸음걸음마다 이국적이고 고즈넉한 풍경이 시선을 빼앗아간다.

정원 내에는 거울숲뿐만 아니라 **서라벌정원, 숲그늘정원, 버들못정원, 천연기념물원 등 13개의 테마정원이 있다.** 숲 해설, 유아 숲 체험 등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고, 시민정원사 양성, 작가정원 조성 등 다양한 관람객을 위한 특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숲은 기온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한여름에는 기온차가 더욱 큰 폭으로 벌어진다. 키가 큰 나무들이 해를 가려주면 그늘 안에서 잠시나마 땀을 식힐 수 있다. 경주천년숲은 숲과 정원이 함께 있어 시원한 자연의 그늘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사계절 즐길 수 있다.



경북천년숲정원 포인트 관람 명소

철쭉원	종보존원	천년미소원
서라벌광장	왕의정원	암석원
분재정원	겨울정원	바닥분수

햇살 가득 경북
| 경북탐구, 삶 |



의성 청년마을 ‘로컬러닝랩 : 나만의-성’

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도시로 향하는 요즘, 일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청년들이 있다. 이들은 획일화된 삶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의성에도 저마다 다른 삶을 살다가 자신만의 '할 일'을 찾기 위해 모인 청년들이 있다. 청년의 꿈이 싹트는 보금자리 '로컬러닝랩 : 나만의-성' 속으로 들어가 보자.

지역과 청년이 공생하는 로컬러닝랩 : 나만의-성

‘로컬러닝랩 : 나만의-성’은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가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Z세대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실험하고 연습해 보는 실험실이다. 멘토리는 2021년 ‘로컬임팩트캠퍼스’를 통해 의성에서 대학생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로컬러닝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 타깃은 20대 청년들이며 그들이 로컬에서의 삶을 연습하고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보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참여자들이 7주 안에 확실한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과의 협업이 필요한 지역의 기업이나 기관을 발굴해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추진한다. 트렌드에 민감한 20대 청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돋보여 참여 기업·기관의 반응이 좋다.



‘로컬러닝랩 : 나만의-성’ 권예원 대표



Mini Interview

Q. ‘로컬러닝랩 : 나만의-성’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현 사회의 교육체제와 획일화된 진로 그리고 과잉 경쟁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에요. 이에 대한 대안이 지역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웬만한 직장은 도시에 있다 보니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쉽지 않아요. 지역에서 청년들이 자신만의 일을 찾아 자립한다면 지역에 머물 이유가 생기겠죠. ‘나만의-성’은 그 이유를 만들어 주기 위해 시작됐어요.

Q. 청년마을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사회와 청년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나요?

A. 현지 청년은 물론 외지 청년들에게 로컬에서의 일과 삶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의성에서는 자신의 꿈을 펼칠 만한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던 청년들이 자신에게 꼭 맞는 일을 찾아 경험하게 된 거죠. 작년에는 참가자 중 2~3개월 더 머물렀던 사람도 꽤 있었고 길게는 지금까지 함께 일하고 있어요.

Q. 지역 사회에서의 관계망 구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A. 지역 청년들을 모아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무턱대고 전단지 붙이고 길을 가다 청년만 보이면 말을 걸었어요. 지금은 한 40명 정도 모였어요. 저는 각종 주민 단체에 들었고요. 여성 풋살팀, 수필모임 등 취미 모임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닿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싶어요. 대도시가 아니라도 내 꿈을 실현하고 펼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이 사회에 좀 더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경북의 빛나는 현재를 조명하는 SNS 서포터즈와의 만남

문화와 관광은 물론 일상 속 스쳐 지나기 쉬운 소식들을 알찬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2023 SNS 서포터즈 2인을 만나보았다. 사진 한 장, 글 한 줄에도 특별한 정성을 담아 경북의 찬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다.



유지은



이황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빛과 사과, 복숭아로 유명한 영천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다양한 대외활동을 해왔는데, 경상북도 SNS 서포터즈는 **내 고장 경북을 홍보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어요.**



안녕하세요. 드론 아티스트 이황준입니다. 경상북도 SNS 서포터즈로 벌써 2년째 활동 중인데요. 하늘에서 보는 경북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대표 콘텐츠?



경북 대표관광도시인 경주의 '경주 MCY 테마파크'와, 청도의 '무아 마운틴 파크'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경상북도 공식 블로그에서 인기글이 된 적이 있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봉화의 전통마을을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하늘에서 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옛 모습을 최신 기술로 재탄생시킨 경험이었죠. 영상 퀄리티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이황준 서포터즈의 드론 풍경 사진



가 크다고 생각해요. 또한 드론 영상 촬영을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분이 드론 영상 촬영의 매력을 맛보고 활발히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SNS 서포터즈 활동과 “나의 꿈”



앞으로 가을과 겨울의 아름다운 경북 모습을 더 알차게 담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인연이 된다면 이어서 활동하며 제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더 많은 분께 경북의 매력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민간사절단’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든든한 서포터즈로서 재치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어갈 예정이에요. 저는 좋아하는 일을 잘해내며 즐겁게 일하고 싶어요. 매사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행 크리에이터로서 앞으로 더 다양한 곳을 여행하며 역사 깊은 문화재와 아름다운 자연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 이미 유명한 핫플레이스도 좋지만 숨은 매력이 있는 장소를 찾아 소개할 때면 더 보람이 크죠. 드론으로 여행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무예를 전공했는데요. 경북의 역사적인 장소 앞에서 무예 독립 영화를 촬영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만의 특별한 매력?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경북은 역사 자원까지 풍부해서 K-컬처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끌어가기에 최적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지를 3곳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웅장하면서 역사적인 장소로 꼽히는 김천 직지사, 탁 트인 바다 풍경이 감동을 전해주는 포항 이가리 닛 전망대, 연인과의 여행에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항 스페이스 워크는 꼭 방문해 보세요.

평소 즐겨보는 콘텐츠나 영감을 얻는 매체가 있다면?



평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며 많은 아이디어를 얻곤 해요. 기발하고 실험적인 소재를 활용하는 사례를 만나면 기억해 두었다가 활용할 곳이 있는지 찾아보는 편입니다.

드론 영상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드론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 시작은 어렵지만, 그만큼 탁월한 퀄리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

유지은 서포터즈의 관광지 취재 사진



어게인 경북

생동감 넘치는 문경새재과거길 따라서 체험행사, ‘새재주막’을 찾다

자연 속 싱그러운 에너지를 만끽하며 걷다 보면 어느새 눈앞에 꿈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바로 문경새재 도립공원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새재주막’ 이야기다. 문경새재과거길을 오르며 주막에서 쉬어갔던 우리 선조들의 삶을 엿볼 수 있도록 실감 나는 배경과 재미있는 콘텐츠로 가득 채워진 곳이다.

 문경새재 도립공원 내 1관문과 2관문 사이



반가운 만남의 기록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새재주막 운영을 이끌고 있는

양재필 대표



Q. 새재주막의 매력을 소개해 주세요.

A. 마치 옛 선비가 된 듯 정겨운 풍경 속에서 전통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떡메치기 체험으로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죠. 8월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투호 던지기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신나는 체험 후에는 문경의 특산물인 오미자로 만든 음료와 커피, 전통주까지 즐겨보시길 추천드려요.

Q. 경북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문경도 피해가 컸는데요. 이곳의 상황은 어땠나요?

A. 올해 5월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행사를 진행해왔는데요. 얼마 전 폭우로 인해 행사를 중단해야 했었죠. 새재길의 일부가 유실되는 등 피해도 있었는데 경상북도에서 빠르게 복구해주셔서 생각보다 빠르게 행사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Q. 앞으로 문경을 찾아주실 방문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A. 문경새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시고 나서 잠시 새재주막에 들러 재미와 추억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찾으실 때마다 다른 경험을 선물해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작은 이벤트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경에는 문경새재뿐 아니라 다양한 관광지와 문화콘텐츠도 많이 있으니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문경시 차원에서도 관광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어 저 역시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 미래의 삶을 코딩하다

·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 ·



우[37362]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봉호로 14

2021년 3월, 상업계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고등학교로 전환 이후 행복한 학교, 꿈을 실현해주는 학교로 도약 중인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를 찾았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경북대학교가 공동 개최한 '2023 해커그라운드 해커톤' 대상과 우수상 등 전국 대회에서 휩쓸고 있는 수상 소식이 학교의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중심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미래 SW 분야 글로벌 리더 양성의 요람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경북뿐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약 30% 정도의 학생이 입학하고 있으며, 기숙사 생활을 통해 몰입도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 소프트웨어개발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게임개발과 등 학과에 맞춘 전공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우는 중이다. 1학년 1학기에는 C언어 등 프로그래밍 교육으로 기초를 쌓을 수 있으며, 3학년이 되면 실무 중심의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탄탄한 취업 역량을 갖추게 된다.



학생이 즐거운 교육의 미래를 열다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지식 주입을 넘어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으로 살아있는 교육을 선보이고 있다. 1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내 해커톤 대회(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주어진 시간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협력 과제)와, 2·3학년 학생들을 위한 캡스톤 프로젝트 대회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채워진다. 특히 캡스톤 프로젝트는 주로 대학에서 실시하는 만큼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데, 팀원 간의 끈끈한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취를 거둬하는 중이다.



산학연 협력으로 키워갈 실무 중심 교육의 힘

2025학년도에는 디지털 마이스터고등학교로 개교 예정이다.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빛나는 미래에 더 큰 힘을 실어주게 됐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와 ‘메타버스콘텐츠개발’로 학과 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산업 수요를 고려한 집중 투자 지원으로 학생들의 우수기업 취업을 위한 도약의 디딤돌로 자리 잡고자 한다.



김성완 교장의 한마디

우리 학교는 올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존경받는 선생님과 실력 있는 학생이 모여 모두의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스쿨 캠핑장’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방과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캠핑하며 친밀한 관계를 쌓고 있습니다.

software coding



재학생의 한마디

게임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프로젝트 중심 교육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프로그래밍 능력을 착실히 키우는 중입니다. 또한 특강을 자주 열어주셔서 동기 부여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재학 중에 다양한 대회 참가는 물론, 제가 개발한 게임을 3개 이상 출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청년의 구슬땀으로 더해진 농촌의 활력

: 경상북도 스마트팜혁신밸리

경북 상주에 자리한 '경상북도 스마트팜혁신밸리'는 2021년 12월 준공 이후 전국 최대 규모(42.7ha)의 인프라로 미래농업의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다. 이곳에서 스마트팜의 진가를 발견한 민경빈/최보례 교육생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이유 있는 자신감

전국 4개 혁신밸리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상북도 스마트팜혁신밸리'는 인구감소, 이 상기후 등에 대응해 스마트농업 정책을 체계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식과 기술력이 집약 된 실증단지과 빅데이터센터를 갖췄으며, 표 준화된 한국형 데이터로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속도를 더하는 중이다. 또한 청 년 창업농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매년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52명을 선발해 집중 교 육과정을 운영한다. 현재 5기 교육생들이 구 슬땀을 흘리며 농업의 모든 것을 배우고 있다. 2개월간의 이론 교육과 6개월간의 실습을 마 치고 '경영형 실습'을 진행 중인 5기 교육생들 은 오이, 토마토, 딸기, 멜론을 직접 재배하며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 듭하는 중이다.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에 미래를 걸다



보이소TV에서
'농번기 | 상주 스마트팜혁신
밸리편'을 시청해 보세요.

민경빈 교육생은 5기 회장으로서 열정적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 그는 농업의 매력으로 '정직한 결과물'과 '무한한 가능성'을 꼽았다.

“일반적으로 농업을 생각하면 강한 노동강도와 쉴 틈 없는 스케줄이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지만, 스마트팜은 혁신 기술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값진 결실이 맺히고, 가족들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높기에 주저 없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민경빈 교육생과 함께 방문한 교육온실에서는 오이 농업에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팜 기술을 살펴봤다. 온실 경영자가 직접 설정한 컴퓨터 셋팅값에 따라 광량, 관수량, 습도 등이 모두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는 환경제어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다.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것에 비해 훨씬 빠르고 정확해 획기적인 노동력 감소와 비용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

동반자와 함께 키워낸 싱그러운 생명력

5기 민경빈 교육생과 4기 최보례 교육생은 바로 이곳에서 결혼의 결실까지 맺었다. 지난 5월 치러진 결혼식에는 많은 선후배, 동기 교육생, 지도자들이 찾아 자리를 빛내주었다. 최보례 교육생은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에 감사를 전했다.

“스마트팜을 운영하다보면 기계 고장으로 수



스마트팜 내부



경북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전경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경북도 상주시

리가 필요하거나, 작물의 성장에 문제가 생겨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많은데요. 연결된 수리업체도 있고, 교수님들께서 신속히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선배기수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인생의 동반자가 생겨 더 든든하기도 하죠. 취미도 비슷해서 일할 땐 집중해서 하고, 쉴 때도 같이 쉬면서 우리만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빈/최보례 교육생은 스마트팜혁신밸리 바로 인근에 위치한 '청사초롱 마을'에 보금자리를 두고 농장 경영에 집중하고 있다. 혁신밸리 교육생이라면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청년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북 스마트농업은 튼튼한 날개로 비상하고 있다.



경북에서 꿈을 키우다 : 외국인 유학생 인터뷰



경상북도에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나 그들이 들려주는 설레는 미래에 귀를 기울였다. 친절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도시, 그들에게 경북은 다채로운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시비야 레타보

의사의 꿈을 향해 달리다

올해 갓 스무 살이 된 시비야 레타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영남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9월에 시작될 2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공과목인 생명과학 수업을 수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의 꿈은 훌륭한 뇌신경 의사가 되는 것이다. 편찮으신 할머니의 모습을 어릴 적 가슴 아프게 지켜보며 키워온 꿈이다. 하루 3시간 강의 수강과 5시간 넘는 개인 공부 시간은 모두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레타보 씨의 열정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비행기로도 20시간 넘게 걸리는 먼 타국에서 공부를 하다보니 외로움도 있지만, 레타보 씨는 어느새 한국 친구도 많이 사귀고 씩씩하게 하루하루 성장 중이다. 12월에는 가족과 반가운 상봉도 앞두고 있다. 스킨케어 화장품을 선물로 준비하겠다는 그녀의 모습에서 행복한 기운이 마구 뿜어져 나왔다.

문화의 힘으로 일상을 충전하다

레타보 씨는 우리나라의 문화에도 완벽 적응했다. 매운 음식을 특히 즐기는 그녀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김치찌개와 닭발을 꼽는다. 남아공에도 닭발로 만드는 음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빨간 양념은 색다른 매력이 있다고 한다. 공부 스트레스는 K-POP과 K-드라마로 해소한다. 고향에서도 K-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포항과 경주에 방문해 봤는데 포항의 푸른 바다에 완전히 매료됐다. 마치 케이프타운의 바다를 연상시키는 그곳에서 그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랜다.

Republic of South Africa



인도에서 온 타릭 마리아

새로운 꿈을 향해 항해를 떠나다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에서 연구 중인 타릭 마리아 씨의 전공은 토목공학이다. 진학을 고민하던 중, 환경에 대한 염려와, 도움을 주고 싶다는 강한 의지로 환경공학부를 택했다. 1년간의 진득한 한국어 학습을 마치고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다. 7개월 만에 TOPIK 4급을 달성할 만큼 열의가 넘쳤고, 이제는 한국어를 통한 감정 표현이 훨씬 낫다고 말할 정도로 유창함을 자랑한다.

마리아 씨의 꿈은 사업가다. 과학 기술을 환경 문제에 활용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치며 변화를 이끄는 리더를 꿈꾼다. 현재 대기오염을 주제로 한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을 작성하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더군다나 그녀는 환경에 더불어 교육에도 관심이 많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만드는 것, 세상과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그녀의 이타적인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India



유쾌한 기억을 쌓아나간다

마리아 씨는 경상북도에서의 삶을 온전히 즐기고 있다. 연구에 몰두하면서도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학교를 벗어나 여행을 떠나며 지역의 맛을 느낀다. 진귀한 문화 유산이 가득한 경주에서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곤 한다. 또 어떤 날에는 활기찬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를 보며 역동적인 에너지를 즐긴다. 지역별 특색있는 음식을 꿰고 있는 건 물론, '포항 물회'에 대한 예찬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경북은 시야를 넓히고 다채로운 세상을 배우기에 풍요로운 땅이다.



미소 가득 경북
| 경북탐구, 훈 |



한복의 멋과 가치를 살리다

한복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한국한복진흥원

한국한복진흥원은 전통한복의 가치를 계승하는 동시에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해 한복산업의 중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명주와 한복, 한계 없는 콘텐츠로 꽃피다

한국한복진흥원은 '함창 명주'로 유명한 경북 상주시에 자리하고 있다. 한복 관련 최초의 공공문화시설로 다채로운 한복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복전시홍보관, 융복합산업관, 한복전수학교 등 약 2,500평 규모의 공간에 한복의 역사부터 산업, 확산을 위한 노력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다.** 한

복전시홍보관에서는 아름다운 색상을 상징화한 입구 조형물을 시작으로 한복명품관, 한복체험관, 궁중복식관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한복의 깊은 세계에 푹 빠져들 수 있다.

한땀 한땀 정성을 다해 키워가는 한복산업

융복합산업관에는 총 9개의 기업이 입주해 한복산업의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전통한복, 개량한복, 한복 소품을 관람할 수 있으며 구매도 가능하다. 또한 **2023년 2월 개소한 '경북한복문화창작소'는 한복 꿈나무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 창업, 판매에 이르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췄다.** 한복샘플제작소부터 한복창업개발소, 한복패턴제작소, 재단실, 그래픽영상실, 촬영스튜디오까지 총 6개의 제작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별 교육생을 모집해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한복진흥원
한복사업팀
강가연 대리

Mini Interview

Q1. 가장 반응이 좋은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A1. '찾아가는 초중고 한복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궁중복식체험과 단계별 학습 능력에 맞춘 교육(한복의 역사, 명칭, 가치 등)을 제공 중인데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Q2. 앞으로 예정된 주요 사업을 소개해 주신다면?

A2. 상설 전시와 더불어 11~12월에는 지난 1년간의 사업 성과물을 모아 특별전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에 열릴 '2023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은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에요. 세계전통모자전시, 세계전통모자 학술세미나, 세계전통모자 패션쇼, 모자댄스페스티벌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 복식 콘텐츠가 가진 무궁한 가능성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K-한복 프로젝트

경상북도는 명실공히 한복의 본고장이다. 우리나라 한복 명장 12명 중 8명이 경북에서 활동 중이며 상주의 명주, 안동의 삼베, 영주의 풍기인견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전통 섬유산업과 함께 끈끈한 동반성장을 이어왔다. 경북은 미래 한복산업의 거점으로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전통은 향하다”



천연부터 넉넉하게 만들어서
뽀뽀 갖다 두르면 옷이 되는
윙윙성 있는 의류, 한국 문화의
멋과 가치를 가진 한복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경상북도가 전통의 향연을
선보인다



모두가 아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의상 우리의 한, 복을
찾아서



보이소TV에서
'우리의 한, 복을 찾아서'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경상북도 명장(名匠)의 전당’에 깃든 영광의 시간

8월 21일, ‘경상북도 명장의 전당’ 제막식이 열렸다. 경상북도 명장의 전당은 지역 곳곳에서 저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빛나는 기술로 경상북도의 발전에 이바지한 우리 지역 명장들의 활약상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 기술인의 공지를 드높이다

경상북도 명장의 전당은 경북지역 명장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조명하고, 명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 지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지난해 5월부터 도내 숙련기술인 3개 단체(대한민국명장회, 국가품

질명장협회, 경북최고장인협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총 4차례 간담회를 통해 현역 대상자 선정 및 디자인 구상, 영상 콘텐츠 제작 등 아이디어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공간 조성에 반영했다.

☑ 명장의 전당에 이름이 오른 날

지난해 10월에는 명장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현역 대상자 선정이 완료됐다. 현역 대상자 자격요건은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경상북도 최고장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공고절차를 거쳐 대상자 신청을 받아 제막에 맞춰 총 100명(대한민국명장 16, 국가품질명장 39, 최고장인 45)이 현역됐다. 제막

식이 개최된 8월 21일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남진 국가품질명장협회장, 경북지역 명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소중한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숙련기술인 3개 단체 각 분야에서 매년 신규로 선정되는 명장에 대해 격년마다 명장의 전당에 추가 등재할 계획이다.

☑ 빛나는 명패와 생생한 영상으로 기록된 삶

올해 1월 초 착수 이후 7개월의 공사를 거쳐 경북도청 동락관 1층에 완공된 경상북도 명장의 전당은 가로 7.5m, 세로 3.5m의 규모로 멀리서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숙련기술인 3개 단체 총 100명의 명장에 대한 개인 명패를 제작하고, 명장의 삶을 개인별, 산업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누구나 감상할 수

있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곳에 설치된 대형화면을 통해 방문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 콘텐츠를 간편히 고르고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영상 콘텐츠의 경우, 업적의 나열에서 그치지 않고 명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그들이 걸어온 삶을 생생히 담아냈다.



“경상북도 명장의 전당” 조성 기대효과 ✨

경상북도의 숙련기술 발전

지역 기술인의 열정 확산

청년 기술인 양성 촉진



새벽 공부의 힘,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매주 화요일, 경북도청의 새벽을 깨우는 화공 특강이 열린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발굴과
토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240회째(23.09.12) 진행 중인 특강 중
명강연을 담아 소개한다.

화공 굿모닝 특강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후 '화요일에 공부하자'란 의미를 담아 열고 있는 특강이다.
매주 화요일 새벽 7시부터 9시까지 경북도청 청사에서 진행되며, 각 분야 최고의 전문
가와 함께한다. 경제·일자리, 4차 산업혁명, 문화, 관광, 최신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로
채워져 도청 공무원들의 혁신적인 공부 모임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 변해야 산다. 도청부터 변해야 한다.
변하려면 공부해야 한다. ”





Class 1

로봇산업 클러스터 기반의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

박종훈

(주)뉴로메카 대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며 **사람의 일손을 도와주는 로봇팔** 이른바 '협동로봇'이 산업현장 곳곳에서 쓰이고 있다. 특히 푸드테크 관련 주방의 자동화와 스마트팜 등의 로봇기술이 각광 받고 있다. 커피를 직접 우려내는 브루잉(Brewing) 로봇, 치킨을 대신 튀겨주는 로봇, 농장에서 토마토를 수확해주고 비닐하우스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로봇 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침범한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기존 노동자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노동환경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현장의 부족한 생산력을 보완해 추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복적이고 위험한 일은 로봇이 수행하고, 근로자들은 협동로봇을 관리하는 기술 인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협동로봇이 추가 고용을 창출해 오히려 고용 확산에 기여할 수 있고, 단순한 업무는 로봇을 활용해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다. 이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미래 산업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로봇산업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등 힘든 노동시장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며 시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Class 2

보건의료 돌봄체계의 혁신 -스마트건강도시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신종 전염병과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의료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과 지역사회, 의료협력 중심의 유기적으로 연결된 의료서비스, 도시특성에 따른 의료플랫폼 '스마트 건강도시'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가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변화해 가야 한다.

앞으로는 환자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건강 정보들이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이런 정보는 의사를 통한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의료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통해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의 건강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게 된다.

건강 및 질병상태 정보를 집 안과 환자 몸에 부착된 모니터링 기기를 통해 얻으며 의료 플랫폼에 내장되어 있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기본적인 진단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하고 인구가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이와 같은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의료는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과정 중심의 의료서비스 보상체계를 결과 중심으로 바꾼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정소식 NEWS



이철우 도지사, “이제는 국민이 대접받는 시대 만들어야”

7월 24일, 집중호우로 인해 예천문화체육센터에 임시 거주하던 이재민 79명이 경북도립대 신축기숙사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재해 발생 시 도민의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려 ‘국민대접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중심, 경상북도! 전국 지자체 중 최고 평가

경상북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공시제 분야 광역, 기초지자체 통합 전체 1위인 종합대상과 우수사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철우 도지사, “이제 우리가 이뤄야 할 광복은 ‘지방화’”

경상북도는 8월 15일 오전 10시 동략관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어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고 겨레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다.



도정소식 NEWS



확실한 지방시대 위해 청년끼리 머리 맞대보자

경상북도는 8월 17일 Y-STAR 경산 청년창의창작소에서 '경상북도 청년정책 생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과 지역 청년의 직접 만남을 통해 청년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 술, '2023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최고 영예 '대통령상' 수상

경상북도는 '2023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김천 수도산와 이너리의 '크라테미디엄드라이'가 대통령상을, 경산 미송주가의 경산대추약주 '추'는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 “서로를 인정하고 통합하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철우 도지사는 7월 27일,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열린 이승만·트루먼 대통령 동상 제막식 행사에서 “민간의 힘으로 ‘승리의 전쟁’을 선포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좌우를 떠나 서로를 인정하고 국민 통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도정소식 NEWS



세계 잼버리 참가대원, '한국 속의 진짜 한국' 경북을 만나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끝나는 8월 12일부터 경북을 방문하는 잼버리 참가자 손님맞이에 나섰다. 국가별로 템플스테이 체험, 세계문화유산 탐방 등이 이어졌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경북을 찾은 스카우트 대원들은 총 1,327명에 달한다.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의 청사진을 한눈에!

경상북도는 8월 18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23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참가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핵심 시책들을 홍보했다.



경북도 직원, 이웃돕기 성금 1억7천798만 원 전달

경상북도는 8월 18일, 이웃돕기 성금 1억7천798만 원을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도청, 소방본부 및 시군 소방서,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6천962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도정소식 NEWS



이철우 도지사, “디지털화된 새로운 전쟁에 대비하라”

경상북도는 한-미 연합자산과 함께 정부 연습 일환인 을지연습 진행 중 국가비상사태(을지2종)가 선포돼 도청 총무시설 종합 보고장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실국별 전시 임무 수행 절차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



경북도, 동해안 지자체 최초 환경정화선 경북0726호 취항

경상북도는 8월 25일 해양수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70톤급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경북0726호’의 취항식을 울릉 현포항에서 개최했다.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선박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K-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리더와의 만남 개최

경상북도는 8월 28일 도청 화백당에서 ‘K- 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리더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K-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 44명은 이철우 도지사를 예방하고, 한국 전통문화체험의 일환으로 성년례 행사에 참여했다.



의정소식 NEWS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 6.29~30 집중호우 피해 현장 긴급 방문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7월 1일 오후 집중호우로 파손된 주택과 도로 등 피해현장을 긴급 방문해 응급 복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주민들을 위로했다. 또한 피해 유가족의 행정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 의료지원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2023 을지훈련' 참관·관계자 격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023년도 을지훈련' 실시에 따라 8월 21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경상북도 충무시설을 방문해 을지연습 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방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7월 5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1년 성과보고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의정소식 NEWS



제59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 운영

경상북도의회는 김천 운곡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59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7월 5일 개최했다. 40여 명의 참여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배후경제권 연구회」 연구용역 성료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배후경제권 연구회」는 7월 6일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반도체·항공·방위산업 연계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배한철 의장, 경북 북부 집중호우 피해 현장 긴급 방문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7월 15일 오후 집중호우로 파손된 주택과 도로 등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 피해현장을 긴급 방문해 응급복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배한철 의장은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응급복구 및 조속한 지원을 요구했다.



의정소식 NEWS



비상연석회의 개최, 피해복구 선제적 대응 촉구

경북도의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배한철 의장, 박영서 부의장, 박용선 부의장, 이철구 의회운영위원장,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피해 대응을 위한 경북도의회 비상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채수근 상병 영결식 조문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7월 22일 오전 9시에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마련된 故 채수근 상병의 영결식을 찾아 헌화하며 안타까운 희생을 애도하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경북도의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천만 원 전달

경상북도의회는 7월 24일 경북 북부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1천만 원을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이재민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도 교환했다.



의정소식 NEWS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아동 청소년 경제교육 활성화 박차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경제교육 발전연구회」는 7월 25일 구미에서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경제교육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결과는 향후 정책발굴과 대안제시 등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 지원

경상북도의회는 7월 27일 사무처 직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문경시 산북면 지역의 상가 일원 피해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복구작업에 참여한 사무처 직원들은 침수된 상가의 토사 배출 작업 및 주변 환경정리에 힘을 보탤다.



경북도의회, 日 독도 도발 방위백서 즉각 폐기하라!

경상북도의회는 7월 28일에 발표된 일본 『2023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것을 강조했다.

소상공인 경영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오롯이 지켜온 신념과 세월로 백년을 잇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소개합니다. 한 번쯤 본 적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업의 개념과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이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지원공단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그 우수성과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백년가게 30년·백년소공인 15년 이상' 업력의 '우수 소상공인'



신청방법



신청절차

신청 대상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 및 소·중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 기반 소상공인



- 모집공고 ▶ 신청 및 접수
- ▶ 서류검토 ▶ 현장평가
- ▶ 선정평가 위원회 ▶ 최종선정
- ▶ 홍보 등 연계지원 ▶ 사후관리

신청경로

온라인 신청 (www.semash.or.kr)



지원내용

홍보지원

확인서, 인증현판 제공,
현판식, 온·오프라인 홍보

판로지원

판로지원, 홍보 및 프로모션
지원, 판로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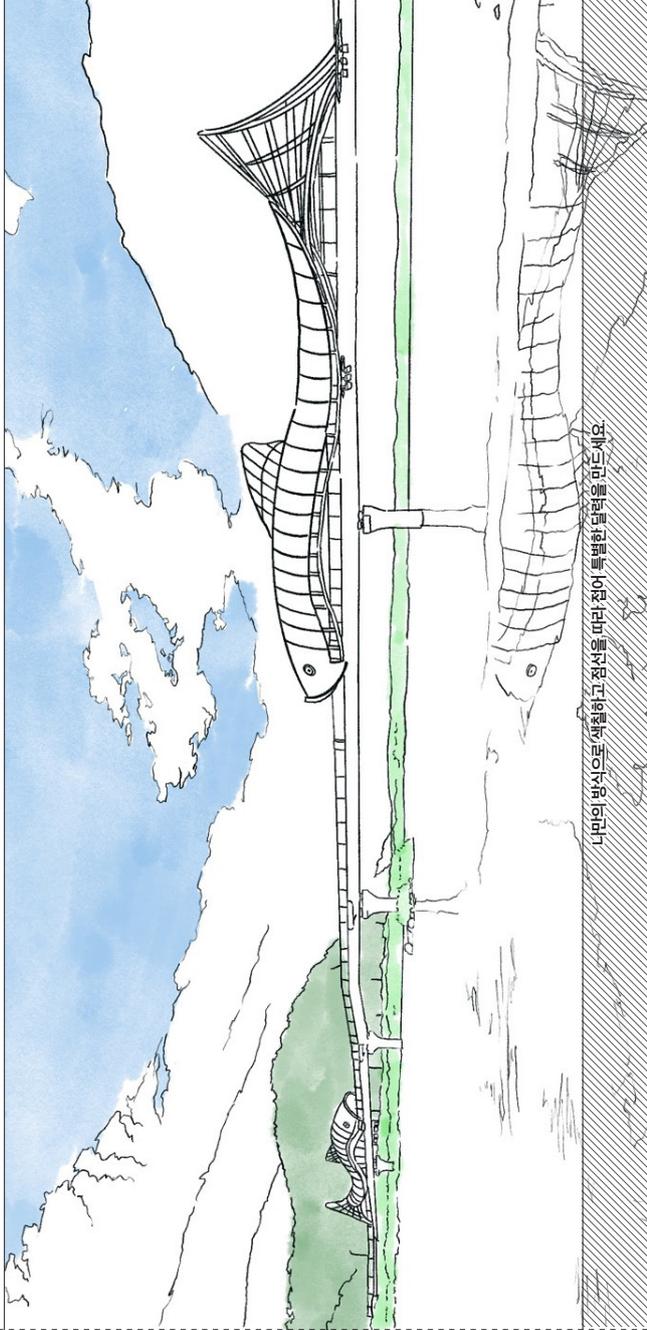
시설개선

매장환경, 작업공정,
작업환경 개선 등 경영환경
전반

기타 지원

융자금리 및 지원사업 신청
우대, 컨설팅, 네트워킹





경북·경남·충청북도 10월 11일 10월 11일 10월 11일 10월 11일 10월 11일



10월

11월

S	M	T	W	T	F	S	S	M	T	W	T	F	S
1	2	3	4	5	6	7				1	2	3	4
8	9	10	11	12	13	14	5	6	7	8	9	10	11
15	16	17	18	19	20	21	12	13	14	15	16	17	18
22	23	24	25	26	27	28	19	20	21	22	23	24	25
29	30	31					26	27	28	29	30		

물진 연어다리

물진군 근남면에 자리한 '물진 연어다리'는 민낫이 낚시 현상이 정편을 이룬다. 우리나라 최대 연어 서식지임을 상징하며, 화려한 야경도 유명하다.

절취선 ✂

2023
Autumn Vol.435

뒤 페이지
이벤트 참여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나이 _____ 세(남/여) _____

주소 _____

□ □ □ □ □

※ 구독 신청(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함 □)

주소 변경 신규

(□ 체크해 주세요)

어게인 경북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23.4.1.~

안동풍산우체국
제40012호

받는 사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대변인실
어게인 경북 담당자 앞
36759

절취선 ✂



DIY 컬러링 캘린더 이벤트

- 01 나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색칠하세요.
- 02 점선을 따라 접고 붙이면 하나뿐인 캘린더가 완성됩니다.
- 03 완성한 작품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주세요.
- 04 이메일 또는 문자로 전송해 주세요.

경품 발송을 위해
성명, 연락처(휴대폰 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참여 이메일 _ event@storypark.co.kr
방법 문자 _ 010-6690-1770

우수작으로 뽑으신 10분께는
1만 원 상당의 디지털 쿠폰을
드립니다.

참여기간 9월 25일(월) ~ 11월 27일(월)
당첨자 발표 12월 1일(금)

❶ '어게인 경북'을 읽고 난 소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❷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사는 무엇입니까?

❸ '어게인 경북'에서 보유했으면 하는 점은?

기사 내용 편집·디자인 부수 확대·배부 방식 종이 질·크기 기타()

❹ 나만 알기 아까운 내 고장의 맛과 멋을 추천해 주세요.

❺ '어게인 경북'을 접하게 된 사연(장소)은?

관공서 방문 지인 홈페이지 기타()



독자 설문

[2가지 방법 중 택 1]

01

왼쪽 엽서에 항목별 내용을 작성하고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02

아래 QR코드로 접속하고
전송해 주세요.



www.gb.go.kr

어게인
경북

경북도서관 독서마라톤 대회

2023.
08. 21. **월** - 10. 31. **화**
72일간



대 상 전 국민

종 목 마라톤 3km 구간

참가방법

경북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독서마라톤 → 참가신청
(경북도서관 회원은 가입 제외)

※ 독서일지 작성 :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읽은 쪽수, 감상평 등 기록

완주자 혜택

- 독서마라톤 완주 인증서 발급 및
우수완주자 시상
- 대출 권수 2배 확대(5권 → 10권)
- 경북도서관 연체 구제 쿠폰 지급
(’24년 1회만 해당)

※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
참고(www.gb.go.kr/lib/marathon/)

달려달려
독서마라톤

0km

힘내힘내
반환점이야~

1.5km

드디어
완주 성공!!

3km

